

# 국힘 당선자들 “尹, 이재명 만나야”

### 권영세 “굳이 안 만날 이유 없다”

### 김용태 “협치는 선택 아닌 필수”

국민의힘 일각에서 여야 협치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야당이 요구하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담에 대해 “야당 지도부 파트너는 여당 지도부”라며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총선 패배 이후로 불리한 의회 지형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야당과의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다.

권영세 의원은 17일 S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 가능성에 대해 “지금처럼 더 나

빠진 국회 환경에서는 꼭 필요하다면 안 만날 이유가 없다. 만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법안 통과가 필요한 때나 야당이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자제시킬 필요가 있을 때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아마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4월 말, 5월 말이라도 야당에서 여러 이야기를 하며 무리한 요구가 있으면 만날 수도 있을 것이고, 정부가 꼭 했으면 하는 법안들에 대해 야당 협조를 구할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제가 대통령에게 조언해 드릴 기회가 있다면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경기 포천·가평 김용태 당선인은 MBC 라디오

에서 “어제 (대통령) 말씀 중에 야당과의 협치, 대화 부분이 들어갔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하지 않는 상수는 대통령과 범야권 192석이다. 이 상수에서 상대를 배려하고 대화하지 않는다면 국정이 돌아가지 않는다”며 “야당과 대화하고 협치하는 것은 이제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직전 대선에서 한때 윤 대통령의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종인 전 개혁신당 상임고문은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에 대해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내가 보기엔 시정상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대통령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김영록 전남지사가 17일 오전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최근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정부 추천대학 선정과 관련해 지역 내 논란과 갈등이 커지고 있어, 이해와 협력을 구하고자 한다’며 보도인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전남도제공>

## “국립의대 전남 신설 위해 모두 힘 모아야”

### 김영록 전남지사 호소문 발표

### 지역 분열·갈등 양상 자제 촉구

김영록 전남지사가 17일 “국립의대가 계획대로 설립되지 못한다면 앞으로 더 이상의 기회가 있을 수 없다”며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면서 의대 설립을 위한 힘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전남도의회 역시 이날 성명을 내고 전남도의 공모 방침을 지지하며 하나 된 목소리로 전남의 응집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국립의대 설립을 위해 도민께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공정한 관리자로서 전남도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공모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전남도의 정책 방향을 믿고 따라줄 것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지금처럼 지역 내 논쟁과 대립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에서 국립의대 신설 문제가 어떻게 될 지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남 의과대학 설립은 정부의 의대 증원 일정과 맞물려 돌아가는 긴박한 상황으로 국립의대 신설 방침과 계획을 신속히 확정해 정부에 추천해야 한다”며 “공모 방식을 통해 추천 대학을 선정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일각에서 공모 철회를 요구하지만 공모를 통한 추천 대학 선정 방식을 대체할 대안이 없다는 것은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도 공모

에 참여하지 않고 교육부에 직접 신청하겠다는 주장도 있지만 정부가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통해 도에서 정해 신청하도록 했고 교육부가 공모 방침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신청서를 받을 리도 만무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대형 컨설팅업체를 위탁 용역기관으로 선정해 엄격한 절차와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고, 용역 추진 과정에서 양 대학과 도민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기회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남도의회도 이날 차영수 운영위원장(강진·민주) 중심으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국립의대 신설은 도민의 힘을 결집해 30년 만에 이뤄낸 소중한 기회로, 현 정부 임기 내 국립의대를 신설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은 도민이 간절히 염원했던 전남 의대 신설이 마침내 확정됐지만 목표대와 순천대 간 유치 경쟁을 너무 동서지역 갈등으로 확대되는 현실에 안타까움과 우려를 표한다”면서 “지자체와 정치권, 대학이 하나된 목소리로 국립의대 신설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목포대와 순천대, 동서 지역사회는 화합과 상생이라는 대응적 차원에서 도민의 평등한 의료기본권 확보를 위해 단일된 목소리를 내주기 바란다”며 “김영록 지사는 공모·심사 모든 과정을 도의회와 협력하고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국힘 실무형 비대위 꾸리기로...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 추대 움직임

국민의힘이 4·10 총선 참패에 따른 위기를 수습할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실무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한 가운데, 당내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을 비대위 위원장으로 추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다만, 윤 권한대행이 집권당의 원내대표로서 야당의 거센 특검 공세에 대응해야 하는 등 업무 부담이 과중한 상황이란 난색을 보이는 것이 마지막 변수로 꼽힌다.

윤 권한대행은 17일 당 원로인 상임고문단과 만나 총선 참패에 따른 위기 수습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이어 정오에는 여의도 한 식당에서 22대 초선 당선인과 오찬을 한다.

이 자리에서 자연스레 비대위 구성을 비롯해 지도부 체제 정비를 둘러싼 각종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남 열린 22대 총선 국민의힘·국민의미래 당선자 총회에서는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윤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맡아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윤 권한



국민의힘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이 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열린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대행은 “좀 더 생각해보겠다”며 즉답하지 않았다. 한 핵심 당직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윤 권한대행이 오늘 국회와 당에서 경험이 많은 상임고문들과 만남이 있으니 그 이야기를 경청한 뒤 가부간에 비대위원장을 맡을지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과반 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등의 처리를 예고하는 등 원내에 민감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을 겸직하는 데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장애인 친화 도시 광주”...복지·의료 기반 시설 확충 속도

### 어린이 재활 의료센터 10월·복합 수련시설 2025년 준공

‘장애인 친화도시’를 선포한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장애인 복합수련시설을 건립하고,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를 개원하는 등 장애인 복지·의료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10월 북구 본촌동 호남권역재활병원 내에 공공 어린이 재활 의료센터를 개원한다. 재활치료가 제때 필요한 장애 아동에게 공공재활의료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일 착공했다.

광주시는 총사업비 72억원을 투입해 증축과 리모델링을 거쳐 외래·치료실과 기존 낮병동 8병상

에서 36병상을 추가하고, 총 44병상(낮병동 24병상, 입원병상 20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또 광산구 옛 인화학교 부지에 전국 최초의 ‘장애인 복합수련시설’도 건립한다.

시는 총사업비 407억 8100만원을 들여 숙소, 전실, 장애인체육관, 다목적체육관, 강의실, 회의실, 프로그램실 등 힐링과 치유를 접목한 복합수련시설을 조성한다. 지난 1월 기존건축물 해체를 시작했으며, 오는 2025년 준공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 밖에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도 추진한다.

서비스는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3가지로 제공된다. 광주지역의 경우 낮활동 서비스(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를 이용하는 50여명이 통합돌봄사업으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설·장비, 의사소통 및 편의기능을 갖춘 ‘장애인 친화 건강검진기관’도 지정·운영한다.

남미선 광주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복지·기반시설 확충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만들어 가는 삶에 행복을 있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전남도,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 1254억원 지급

전남도가 올해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농어업인에게 농어민 공익수당 1254억원을 4월중에 지급한다.

농기당 60만원씩 시·군 여건에 따라 지역화폐, 선불카드, 제로페이 등으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농업인 19만7000명, 어업인 1만2000명 등 20만9000명이다. 지급 대상 농어업인은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을 가지

고 읍면동사무소나 농협에 방문해 수당을 수령하면 된다. 자세한 수령 방법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전남도에서 전국 최초로 2020년부터 시행해 현재 전국으로 확산 시행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상상을 넘어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갑니다**

한전KDN은 에너지 신기술로 전력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 에너지 IC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스마트한 세상을 한전KDN이 만들어갑니다. 새로운 에너지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리더, 한전KDN

**발전**  
경제적인 전력 생산과 정확한 거래 에너지 ICT로 만드는 그린 에너지 세상

**에너지신사업**  
4차 산업혁명 선도기술을 적용한 에너지신사업 발굴을 통하여 에너지 ICT 선도기업으로 도약

**송변전**  
전국에 신재한 설비, 완벽한 관리 및 운영 전력공급 설비의 안정성 및 효율성 보장

**경영정보**  
고객의 특성에 맞는 전력경영 IT 솔루션 컨설팅, 설계 및 구축

**배전**  
전기 사용을 위한 전차후 에너지 고효율의 전기 공급

**판매**  
전기사용의 정확한 계량, 검침, 수입 고액의 정직한 만납